

2019년 1월 / 제33호

의정소식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단양군의의회
www.dycc.net

CONTENTS

2019년 의장 신년사 / 04

2019년 의원 신년사 / 06

2018년 의정 결산 / 1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현황 / 19

의원발의 조례안 / 20

성명서 채택 / 21

5분 자유발언 / 23

군정질문 / 3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39

신문스크랩 / 50

2019년 회기운영 계획(안) / 54

제8대 단양군의회 의원 현황 / 55

부록 / 56



국민과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2019년 의장 신년사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 단양군의회 의장 김 영 주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온 군민의 화합 속에 단양군이 새로운 희망을 펼쳐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정치·경제적 변화가 있었고,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 그리고 태풍 등으로 군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든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군민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현장을 찾아가며 발로 뛰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을 보내고 새롭게

다가온 2019년에 단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군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현장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넷째, 단양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소망한 바를 성취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 찬 살기 좋은 단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양군의원들은 주요 현안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본연의 업무인 감시와 견제활동에 최선을 다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단양군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 1. 2.

단양군의회 의장 김 영 주



2019년 의원 신년사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 단양군의회 부의장 강미숙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9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6.13 지방선거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초선의원인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켜보면, 초선의원으로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여러 지역을 다녀보고 찾아가는 현장의정을 펼친 결과, 우리 지역 곳곳에 계시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분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인 보람된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해 의정활동을 돌아켜보면, 동료 의원들과 단양군 의료원 건립 관계로 타 지역인 화천, 평창, 진안, 강진 등을 방문·견학 하면서 단양군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현실을 깨달았으며,

도지사를 방문하여 의료원 건립 지원의 타당성을 건의하였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터인 '장애인 보호 직업장' 설치가 얼마나 절실한지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군정질문을 통해 단양노인복지관 운영상 문제 및 시설 보수 관계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노인·아동·여성 복지정책의 내실 있는 제도운동을 통해 소외됨이 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이야말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복지단양을 건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지역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의원 신년사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 단양군의회 의원 김광표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은 여러모로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지방동시선거로 전국이 뜨거웠고, 날씨도 폭염과 늦은 장마가 농심을 애대웠으며, 정권교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혜롭게 갈무리 되지 못하고 국민들을 상심시켰습니다.

북한문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숙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자치단위에서 안정되고 탄탄한 경영이 이루어져야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이 길을 잃지 않고 희망의 향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군민여러분께서 저를 의회로 보내신 의미를 매일 아침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단양군의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양군의 정책이 단양군의 미래를 위해 계획되고 있는지?

단양군의 재산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단양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민여러분의 대표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천만 관광객으로 인하여 호황을 누리는 등 희망도 품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병원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며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단양만들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와 투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인프라 구축, 부족한 문화 공간등의 효율적인 설립과 배치, 다품종 소량생산에 맞는 단양 농업 살리기 대책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터전인 "단양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단양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군정과 의정을 항상 열린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낌없는 질책과, 합리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도 보내주시십시오!

항상 투명하고 열린 의정을 통해 의회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단양군정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의원 신년사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 단양군의회 의원 장영갑 |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의 상서로운 기운이 아름다운 저의 고향(故鄕),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본향(本鄕) 단양 온 누리에 울려 퍼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새해 새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해(2018년)는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변곡점인 제8대 단양군 의회가 새롭게 개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부족하고 미력한 제가 제5~6대에 이어 다시 한 번 제8대 단양군의회 의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새롭게 개원한 제8대 단양군의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군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좀 더 진솔하게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질타하여 주시고, 잘한 일이 있다면 격려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고 미력한 제가 제8대 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그리는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보다는 '우리' 라는 열린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것이 더딜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정사회, 투명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2019년 황금돼지띠, 행복이 우리를 향해 달려 올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새해는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의원 신년사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 단양군의회 의원 조성룡 |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한 가운데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과 소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난해 단양군의회원으로 출마하면서 참 좋은 단양, 정말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데 제 스스로 단양의 밑거름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이웃집 친구 같은 조성룡', '단양의 미래에 앞장서는 조성룡', '공무원 신바람에 동행하는 조성룡', '군민들의 작은 바람까지도 함께하는 조성룡'을 의정 목표로 삼았으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제8대 단양군의회 개원 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제271회 정례회(2018. 9. 18)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지역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대회 개최 및 실업팀 창단과 태양광 발전소 난립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제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73회 정례회(2018. 12. 20)에 제출된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73회(2018. 11. 30)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업은 우리군에서 과감하게 예산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 및 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단양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와 사회복지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 하는 등 관련 제도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3,790억원의 단양군 살림을 살펴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과 사업현장도 꼼꼼히 둘러보고, 군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살이 살피면 후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뛰면서 제대로 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불망초심(不忘初心,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다는 뜻)의 마음으로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밝아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각 가정마다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의원 신년사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 단양군의회 의원 오시백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9년 희망과 도약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초선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우리 단양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아갈 비전이 무엇인지, 또한 군민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격려와 때로는 질책 속에서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온 보람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답보상태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은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이에 따른 지역 경제 또한 지속적인 침체 속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군민의 단합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단양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더욱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단양군민 여러분이 힘을 한데 모아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의원 신년사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 단양군의회 의원 이상훈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해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고 희망찬 2019년도 새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행운과 기회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2019년도 황금돼지띠 기해년에도 지난해 열심히 달려왔듯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다보면 모든 분께 행운과 좋은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은 곧 우리 단양군의 희망인 것입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단양군이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신뢰 받는 군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 군의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는 군의원이 될 것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일조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 창출의 어려움 등을 살피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단양군의 여러 정책들이 우리 단양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8대 단양군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만 부족한 점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열정이 담긴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지역일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기해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뜻하시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8년 의정 결산

2018년도 단양군의회 의정활동 결산

-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 -

제8대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가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를 기치로 힘찬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단양군의회는 4년의 임기동안 군민들의 권익 대변과 복리 증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성실하고 검소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단양군의회는 총 8회 7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57건의 조례와 1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였고, 3차례의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을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17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18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고, 26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지점검 하여 24건의 의견제시 등 시정 요구를 하였 으며, 55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발 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단양군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회', '현장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단양군의회 회기 운영 현황

회기	활 동 기 간	주요처리안건
제266회 임시회	2. 20. ~ 2. 23.(4일)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 채택 ·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특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31건, 주요사업장 시정사항 17건)
제267회 임시회	3. 16. ~ 3. 23.(8일)	· 조례안심사(2일 / 23건 ⇒ 원안21, 수정2) · 예산결산심사(3일 / 2018년도 제1회 추경)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제268회 임시회	6. 28. (1일)	·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69회 임시회	7. 3.(1일)	· 의장 · 부의장 선출의 건
제270회 임시회	7. 23. ~ 7. 31.(9일)	· 공유재산심사(1일 / 6건 ⇒ 5건 포함, 1건 삭제) · 예산결산심사(2일 / 2018년도 제2회 추경)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제271회 정례회	9. 3. ~ 9. 18.(16일)	· 예산결산심사(1일 /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 공유재산심사(1일 / 2건 ⇒ 2건 포함) · 조례안심사(1일 / 8건 ⇒ 원안4, 수정4) · 행정사무감사(9일 / 감사자료 174건, 지적사항 18건)
제272회 임시회	11. 13. ~ 11. 26.(14일)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군정질문(55건) · 민간위탁 동의안(3건)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26개 사업장 점검 / 지적 및 개선요구 24건) · 조례안심사(1일 / 8건 ⇒ 원안5, 수정3)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
제273회 정례회	11. 30. ~ 12. 20.(21일)	· 단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의견 청취의 건 · 2019년도 출연 계획안(3건) · 공유재산(2일 / 7건 ⇒ 5건 포함, 2건 삭제) · 조례안심사(2일 / 18건 ⇒ 원안13, 수정5) · 예산심의(13일 / 2018년도 제3회 추경, 2019년도 본예산)
계	8회 / 74일	

의원발의 조례안

연번	의결일자	조례명	발의자	주요내용
1	2018. 9. 18. (제271회 정례회)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장영갑 의원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 심사 및 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
2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성룡 의원	기존 의원 신분증을 패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가로 규격을 세로 규격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분증 앞면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2018. 11. 26. (제272회 임시회)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조성룡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 사회 복지 협의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조성룡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성명서 채택

제27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8. 11. 26.)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국회와 시멘트 주변 지자체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는 시멘트 업계의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천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후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했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시멘트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국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반면 그동안 우리 군을 비롯한 인근의 제천시와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의 지역은 시멘트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경관 훼손, 소음, 진동, 미세먼지, 도로파손 등의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했으며, 주민들은 오랫동안 건강·정신적 피해로 고통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 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상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 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지만, 한행 지방세법상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은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화력발전 다음으로 심각하고, 소성과정에서는 각종 폐기물을 대량 반입하여 연소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 민원과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도 저해하고 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자원은 오염 저감시설 설치, 폐광산 복구 등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건강증진, 지역의료원 지원 등 보건의료사업 및 낙후·소외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충북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연평균 1,988만 톤으로 전국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액은 연간 199억 원이고, 전국적으로 577억 원이 예상된다.

시멘트 40Kg 한꾸에 40원의 부과는 판매가격의 불과 1%도 안 되는 비율이며 국내 주요 시멘트 생산업체 6곳의 3년치(2013~2015년) 경영실적을 보면 연평균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난 50~60년 동안 시멘트 생산 지역의 환경피해와 대기오염, 분진공해,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정신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역의 배아저가 입으로서 시멘트 업계 스스로가 먼저 지역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인해야 마땅하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3개 지역구의 의원들을 담아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에 대하여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

▶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9. 18.) - 장영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영갑의원 입니다.

저는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최근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진행과 의전이 경직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전이란 무엇일까요

의전이라고 하면 통상 지나친 격식, 과도한 형식 등 무언가 부정적인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하고,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형식보다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잘하는 의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전을 대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는 격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가짐으로 유연함을 견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어떻습니까

매년 개최되는 쌍둥이 힐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소백산철쭉제, 단양마늘축제, 단양아로니아축제, 단양온달 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 의전을 보면, 내빈소개와 다수의 축하, 격려사 등으로 지루한 행사 진행과 잦은 박수 유도로 참석한 군민들부터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참석 내빈 좌석배정 및 소개순서 혼선 등 행사진행 미숙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을 상하게 했으며, 참석한 군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중에 내빈을 맞거나 환송하느라 행사진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고 인사소개만 끝나고 우르르 몰려나가는 모습에 군민의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수나 주요내빈의 행사장 도착 지연으로 행사를 정시에 시작하지 않는 등 행사 참여자를 외면한 관 주도 행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공무원들의 행사 동원과 의전위주의 행사로 인해 일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착 주인공이 되어야 할 군민들은 의전행사를 위한 참석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대에 따라 의전도 변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참석하는 사람을 주안점으로 하는 행사와 의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런 참석자를 먼저 배려하고 공감하는 군민 중심의 행사진행 및 의전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행사 의전 간소화 주요내용을 보면 내빈석을 좌석 지정제에서 도착순서대로 앉는 자율좌석제로 전환하고 행사주관단체 관계자나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을 앞자리에 최우선 배려도록 했습니다.

또한 내빈소개를 과감히 생략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개인별이 아닌 일괄 소개토록 했습니다.

축사, 환영사는 기금적 최소인원으로 하고 일회성 코사지 패용이나 화환은 생략하고 행사는 정시에 시작하는 등 참여자 중심,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의전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의전을 받는 우리부터 권위 의식에서 탈피하고 나두 무르게 젖어버린 관습에서 벗어나 참석자를 먼저 배려하고 공감한다면 의전은 자연스레 간소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존중받고 의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군민이 행사의 주인이 되고, 군민이 행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전 간소화 추진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의원 김광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단양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 침체화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해 출생아는 100명 이하로 감소했고, 이로 인한 아동 인구감소는 당장 보육관련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이는 다시 젊은층 일자리를 감소시켜 인구 유출과 아동 감소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빨리 인구절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절박함을 깨닫고 우리 단양이 아동과 청소년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충북 내 타 지자체보다 더 빨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만들면서 발 빠르게 청소년 문화와 복지정책을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케어를 제공해왔으며,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놓친 아이들의 문화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은 낡게 변했고,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에도 안주하는 사이, 정책적으로는 답보하였고 상대적으로 퇴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단양의 예산 일부를 단양의 허리층을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층에게 더 투자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단양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단양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투자도 줄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과감히 투자를 늘려서, 단양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단양에서 자식들을 놓고 기르며 살고 싶도록 하고, 타지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아서 단양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단양이 정책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이 없으므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는 잘 지원하여 외지로 나가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고, 단양에 남거나 다시 단양으로 돌아올 아이들은 최대한 단양에 대한 좋은 기억과 지역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지역자체의 고급 문화와 또 단양의 강점인 레포츠포를 많이 접하게 해주어 단양에서 관련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산재한 레포츠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었고, 제가 제안드리는 청소년 복합문화관인 것입니다.

지금 단양의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몇가지 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 장소 이전 및 청소년 수련관의 통합 문제이며

그 둘째는, 다누리 도서관의 이전 문제입니다.

물론 두가지 정책 모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수중보 완공이라는 관광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나루터와 스토리텔링관 조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과 도서관 증설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는 단계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군민의 뜻을 파악하고, 특히 수유지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요구에 바탕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세심한 통합계획 없이 시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복행정과 예산낭비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누리 도서관은 그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현 위치보다 나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고, 현재의 시설이나 위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므로, 현 단계에서 위치 이전은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청소년 수련관 위치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의 후퇴를 야기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그나마 있던 문화공간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배부하드린 설문조사 결과는 본의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설문의 결과는 우리 단양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이를 해결할 공간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복합문화 공간이 생긴다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6%에 이르고 그중에서 적극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43.7%에 이를 정도로, 문화적 수요가 크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누리도서관 이전은 현 위치가 좋다는 의견이 7%에 이르고 있어, 개초에 이전을 검토하게 된 요소중 하나인 공간 부족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도서관은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우리 단양의 청소년 이동정책을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및 이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 드립니다.

도서관을 이전하는 비용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에 소요될 비용을 더한다면, 어렵지 않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유치하여 이동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들의 청소년이 공부와 진로모색으로 지친 심신을 수계 하고 그들의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게 해 준다면, 단양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더 늦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누가 남아 단양을 지키고 가꾸겠습니까?

본의원은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이동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행복한 희망을 만드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90일이 되는 오늘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무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듯, 벌써 2019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가지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소 건립 허가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로 태양광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놓고 지역민의 건립 반대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발전소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시공에서 장기 관리까지 본인 직접 인터넷 모니터링과 휴대폰 CCTV 설치 앱으로 인력 고용없이 관리 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선전하기도 하지만 선전과 달리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니란 것이 일부 의견이기도 하면서 패널에서 발생하는 상승열로 농작물 성장에 필요한 꿀벌과 곤충 미생물 등이 정지되어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태양광 패널을 교체할 때 폐기물 처리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 시책으로 추진했던 심야보일러 설치 당시에는 평생토록 전기 요금의 확실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대단했지만 모두가 잘 아시는대로 요즘 현실은 심야보일러 전기나 일반 전기나 별 차이가 없어 주민들의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기준 전국 53개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한 예로 청송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하지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km 안과,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47기가와트(GW)규모의 상업 발전을 목표로 전국 저수지에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중에 전국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경남 고성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산업통상부에 허가 신청한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산자부와 허가상의 의견조화와 업무협의를 거쳐 태양광발전 설치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와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므로 농어촌공사는 수상 태양광 허가신청 철회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면서 백지화 된 사례가 며칠전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가 수익성 저조 등 이유로 전락할 수도 있어 앞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관광특구인 우리 단양군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태양광 발전소 누적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제언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방법 추진입니다.

동력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낙하산의 활공과 행글라이딩 원리를 이용해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며 비행의 쾌감을 만끽할 수 있다는 패러글라이딩은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잘 맞아떨어져 레저 스포츠로 2013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특히 남,여 정밀착륙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남,여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19개의 메달 중 우리 대한민국이 여자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과 남,여 정밀착륙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효자 종목으로 부상하면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과 선수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대단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의 새로운 금발로 떠오른 패러글라이딩에 현재 단양읍 상진리에 거주하면서 두산철공장에서 파일럿으로 활동중인 이철수 선수는 단체전에서 은메달과 개인전에서 동메달의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메카답게 패러글라이딩하면 단양으로 전국 명성을 갖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오래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배, 문화체육부장관배, 산림총장배, 대한체육회장배, 충청북도지사배 등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를 단양에서 개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한 몫을 하도록 하는 것과 우리 단양에 패러글라이딩 실태를 창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서 단양이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 메카다운 역할을 하여 체계적으로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겸한 관광단양을 홍보함은 물론 말씀드리 태양광발전소 거점 허가 문제와 우리 지역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방법 추진 등 두 가지 제언사항이 하루속히 실현되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제언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의원 강미숙입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자리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늘 우리의 곁에 있지만,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잊어져 지내시는 분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단양군에는 2018년 10월 현재 2,86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성이 1,642명, 여성이 1,226명이고 단양군 전체 인구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사회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히 노인복지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보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삼곡리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느 할머니 한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약간 불편한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사시다가 단양에 오신지 6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분께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여쭙보니, 이렇게 노인에게 잘해주는 곳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단양군의 노인복지에 대해 한참동안 칭찬 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도와드리면 좋을지 여쭙보는 저에게, 이 보다 더 많이 바라면 어른으로서 너무 큰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소외된 다른 분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분을 만난 자리에서는 제 가슴이 아릴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 타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외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부터,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 문제, 아프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병원비 등 그 동안 그분들이 속으로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애로사항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보니, 이 분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단양군에서 실시한 자립지원 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무척 원했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취업난이 심각한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일터를 제공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우리 단양군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적극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지원 사업은 시행을 원하는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는 청주시에 14개소, 충주시에 3개소, 제천시에는 설립중인 1개소를 포함하여 총 3개소가 있고, 진천·옥천·영동에 각 1개소씩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단양군이 추가 된다면 3천여 명의 장애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양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2018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에서 보면 복지관의 시설공간은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의 시설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양 장애인복지관에는 각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는 부족하고,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외곽지역으로 설치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함께 입주한다면, 장애인단체들은 더욱 편리하게 일할 수 있고, 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더욱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집약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 된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장소는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겠지만,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구 금곡초등학교 부지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이곳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금곡초등학교는 읍내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넓은 부지로 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장애인 및 관계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지금 제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아니, 2020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단양에 계시는 모든 장애인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마련해 주시어 이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양군의 3천여 장애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해에는 3만여 군민 한분 한분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정례회에 함께 참석하신 류한우 군수님과 신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한분 한분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께도 2018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제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주요 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며, 바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자”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부담과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모두 분석하여 말씀드려야 하지만 우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에 대하여 나름대로 간단히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도 173건, 2016년도 171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9건 등 3년간 총 5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총 513건의 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 부담금 10% 미만인 사업이 2015년도 27건, 2016년도 23건, 2017년도 25건으로 3년간 총 75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비 부담금이 5% 미만인 사업도 23건이나 되는데 23건은 90%에서 97%, 98%를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몇%까지 국·도비를 지원하고 몇%를 시·군비로 부담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과 관련하여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정도인 우리군의 입장으로선 군비 부담금이 그야말로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시·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 반영을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 합니다.

두 번째,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군비 50%를 부담한 4억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양하수처리 시설에 100kw의 설치비 3억 100만원과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 38kw 설치비 1억 1,100만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1년과 설치 후 1년 동안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 1년간 전기요금이 1억 4,483만 6천원에서, 설치 후 1억 3,483만원으로 1년간 전기요금이 900만 7천원이 절감되었고 한국석화석산소재연구소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1년간 전기요금이 9,289만 5천원에서, 설치 후 8,482만 1천원으로 1년간 전기요금이 7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전기요금이 절감된 듯하나 태양광발전시설 원금투자비를 회수하려면,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30년이 지나야 되고, 한국석화석산소재연구소는 14년이 지나야 한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내구연한이 태양광모듈은 20년이라고 하지만, 전혀 고장이 나지 않은 최상의 상태에서도 내구연한 기간 동안 원금 투자비를 50%정도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도 내 돈이 아니니 계속 하겠냐고 아쭈 보고 싶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사업 평가기준에 신재생에너지규제가 있는 경우 최대 3점의 감점평가를 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100%가 안 되는 시·군에서는 속으로만 하소연 할지 모르지만, 설상가상 2019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도 군비를 50%로 상향하여 부담토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군비 50%를 부담하는 국비 사업이지만 내구연한 기간에는 원금회수도 못하고 30년, 14년이 지나야 겨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 함께 지금부터라도 감이 고민해 봐야 할 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들이 여러 들은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분석을 당부 드려면서,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분석을 계기로 타 사업은 이런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문제와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마련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알마 남은 2018년 일찍이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단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Question

〈 단양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

단양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부의장



- ▶ 2018. 3. 31 개편한 노인복지관은 11명 현재 관장 외 10명의 종사자(480여명의 복지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분	한계	관장	사회복지사	일반직원	조리원	관리원	비고
계	11	1	6	1	2	1	

Answer



(주민복지실)

- ▶ 노인복지관 내 주요 시설로는,

1층	물리치료실, 식당, 휴게실, 노인회자회 사무실, 단양읍분회사무실
2층	복지관 사무실, 상담실, 탁구장, 프로그램실, 문서고, 전사실, 휴게실
별관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취미, 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개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컴퓨터, 서예, 한국화 등 7개 프로그램은 강미숙 부의장님의 자비내유 공간이 협소해서 연세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우리군에서는 프로그램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층 옥상 증축공사를 위한 구조자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증축공사기 이루어지면 모든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이용 통행문제로 대해서도 관저, 급커내에 산악조형과 협의회에서 계단, 가파른 진입로와 도로로 연결되는 경사부부에 데크계단을 설치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관저부서(규형개발과)와 협의하여 도로변에 보행자 전용 통행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 건물 내 누수부분도 지난 9~10월 하자보수 등 보완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 노인복지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골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노인복지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

김광표 의원



〈 단양나루 활용 계획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설립에 대한 단양군의 입장 〉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단양문화마루를 이전할 공간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여부 및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 등에 대해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군수)

- ▶ 미래 단양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청소년 문화의집과 수련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단양 청소년 문화의집을 대명콘도 옆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고 기존 건물은 관광을 위한 역점사업(제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접근성 및 지역주민의 여론 등에 따라 이전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단양청소년 문화의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 ▶ 그리고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청소년 복합문화관 건립은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지원 등 청소년정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평가되어 청소년들의 수요도와 시설부지 지역여건 등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심층 검토하고 결정 하고자 합니다.



Question

장영갑 의원



〈 단양의료원 용역과 관련하여 〉

현재 우리군에서는 민선7기 이시종 지사가 공약한 도립의료원 추진을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충북도에서는 재정 부담을 사유로 단양군 자체적으로 군립의료원 추진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종합적인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군수)

- ▶ 취약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군은 지난해 충북도에 도립의료원 건립 지원을 요구한바 있으나, 도 관련부서에서 강력한 수용불가 의사 전달로 인해, 같은 해 6월 단양의료원 타당성 조사(용역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시작하여 금년 5월 완료 하였습니다.
- ▶ 그러나, 지난 2월 6일 이시종 지사님께서 단양군 도민과의 대화 시, 도립의료원 단양분원 추진을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지사님 공약으로도 약속하셨습니다.

- ▶ 이에, 군민들은 자사님의 약속대로 도립단양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 단양분원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충북도에서는 군립으로 추진하되 200억 이하 40병상의 소규모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응급의료 기관을 갖춰 운영하려면 최소한 68병상 규모로 건립되어야 의료법상 CT 등 필수 의료장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우리군 민의는 열악한 단양군의 재정으로는 군립의료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자문단을 구성 2차에 걸쳐 충북도와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점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며, 적자를 이유로 단양군민의 의료복지를 외면하지 말 것을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도립의료원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시종 자사님께서 도립단양 의료원 건립 공약 이행을 지속하여 요구할 것이며 만약, 도립 이행이 어렵다면, 군립으로 추진 시 도차원에서 건립비 중 지방비 지원분 부담비율을 높여줄 것과 매년 운영적자 중 50% 이상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Question

〈 단양읍내 주차난 해소방안 〉

단양읍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 ▶ 단양읍 간선도로와 골목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차요금 징수방안 및 옛 서울병원과 중앙공원 그리고 시장상가 주변에 대형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Answer



(군수)

- ▶ 단양읍 주간선도로는 59호선 국도로 1개 차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 간선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충청북도 도로과 검토결과) 받은 바 있으며,
- ▶ 현재 사용 중인 공영 및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은 차량들의 무료 주차공간(골목길 등)으로 주차를 유도를 하게 되어, 결국 교통체증을 더 유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주차요금 징수는 국도의 우회도로 개설 등 지역의 교통여건 변화가 있을 때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 ▶ 옛 서울병원과 중앙공원, 시장상가 주변의 대형주차 타워 설치에 대하여, 현재 서울병원은 의료원 부지로 검토 중에 있고, 중앙공원에 주차타워 조성 시 주차면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시장 상가 주변에도 조성할 부지가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단양읍 수변로 공영주차장에 140면과 하상주차장 330면, 그리고 상진리 도로변에 150면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고수동굴 제3주차장 130면, 상진하상주차장 200면 및 만천하스카이워크 주차장 260면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구경시장 : 52면 / 상상의 거리 : 50면 / 고수대교 옆 : 38면)

- ▶ 또한, 하상주차장의 침수로 별곡생태공원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시내와의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지만, 시내까지의 거리가 700여 미터로서 도보로 이동할 경우 8분 정도 소요됩니다.
- ▶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람하면서 가족과 함께 걷는다면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국궁장 이전과 동시에 도로개설 및 생태공원 정비를 통해 대형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이동시간 단축(4분)으로 이용객 증가는 물론 관광객 1천만을 넘어선 단양읍내 주차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Question

〈 단양군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 ▶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청주, 충주, 음성, 진천을 제외한 7개 시군이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Answer

(군수)



-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2006년~2011년) 전략사업으로 단양 관광종합타운 조성,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설치에 따른 관광 단양의 중심거점을 마련하였으며,
- ▶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2012년~2016년) 전략사업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 소백산자연휴양림 조성,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 등 체류형 관광1번지를 만들고자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 그리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2017년~2021년) 전략사업으로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별다른 동화마을조성 사업,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3단계 사업은 단양호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분산된 주요 관광지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단양군내 8 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적인 발전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 ▶ 지역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읍면 소재지 기능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노후주택 정비 및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새들마을 사업, 그밖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 모든 읍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균형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 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 ▶ 앞으로도 읍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 더욱더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 다음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질문하신 스마트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의 효용은 농업시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을 통한 생육환경 유지관리, 환경정보 모니터링 등 자동·원격 환경관리를 통한 높은 생산성과 편의성입니다.
- ▶ 스마트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의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스마트팜의 원격 제어도 결국은 사람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복잡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숙련도와 초기 투자 및 관리비용이 크다는 점입니다.
- ▶ 우리군에서는 2018년 8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부터 스마트온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연령을 하향화시키고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온실 운영의 경험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농업인이 창업 후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Question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발굴 계획과 단양군의 청년 지원 정책으로써의 중장기적인
계획(Road map)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Answer



[지역경제과]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연계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 ▶ 먼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4개업체 8명의 청년을 채용 청년취업자 인건비(90%)와 주기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 ▶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아동돌봄센터 등에서 직무경험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단양청년창업공간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추진 방식을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유입 및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 도입으로 침체된 매포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 ▶ 2019년에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신규 발굴된 5개 분야의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여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청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 아울러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고용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능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 ▶ 지역의 청년을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사업과 충북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유도와 미래자산 형성 지원하고 2022년까지 예비 청년창업자 창업 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인구유입을 위한 여건 조성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회기운영

①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운영



본회의 I



본회의 II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지점검 특별위원회

② 행정사무감사



③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의정시책 추진

① 민원순회상담제 운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시
장영갑 의원	오시백 의원	김광표 의원	이상훈 의원	조성룡 의원	의장, 부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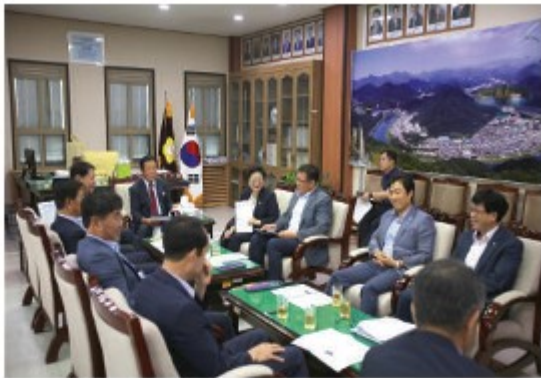
② 의원 지역담당제 운영

-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김광표, 장영갑, 조성룡 의원
- 매표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김영주,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의원

간담회

① 정례 의원간담회: 14회

- 중고등학생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계획,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계획, 단양군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 변경, 수양개문화공원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논의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찬

① 제8대 단양군의회 의정연수 : 2018. 7. 9. ~ 7. 11. / 태안일원



② 제8대 단양군의회 의정 연찬회

- 일 자 : 2018. 8. 27.
- 장 소 : 단양군여성발전센터 3층 회의실
- 내 용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③ 제8대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원외연수(의원7, 직원3) : 2018. 11. 5. ~ 11. 9. / 일본





④ 제8대 단양군의회 하반기 의원 및 직원 합동 연수 : 2018. 11. 26. ~ 11. 27. / 경남 통영시, 거제시



선진 의료원 견학

- 일 자 : 2018. 8. 21./ 2018. 8. 30. ~ 8. 31.
- 장 소 : 화천군 보건의료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진안군 의료원, 강진 의료원



화천군 보건의료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2018. 8. 21.)



진안군 의료원, 강진 의료원 (2018. 8. 30 ~ 8. 31.)

지방의회 간 화합 • 교류 협력



2018. 8. 24.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



2018. 8. 28. 증평군 의회 내방

의회 홍보



단양중학교 학생 의회 체험 : 2018. 5. 24.



소백산중학교 학생 의회 체험 : 2018. 7. 16.



소백산중학교 학생 의회 체험 : 2018. 11. 22.



기타 행사



2018. 7. 3. 제8대 단양군의회 개원



2018. 7. 20. 제12회 단양마늘축제 개최식



2018. 7. 23. 새마을회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 문고 개소식



2018. 9. 18. 사랑 빛은 나눔송편 만들기 행사



2018. 9. 19.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2018. 9. 21.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018. 10. 8. 제9회 단양군민 행복어울림한마당 행사



2018. 10. 19. 제22회 온달문화축제



2018. 10. 21. 제19회 금수산감골단풍축제



2018. 10. 21. 셀렌진스키군 대표단 환영 오찬



2018. 10. 31. 단양군 일자리박람회



2018. 11. 12. 단양군의회의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2018년 신문스크랩

중부매일

2018년 07월 04일 (수)
17면 3지역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강미숙 부의장

8대 충북 단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77·나선거구) 의원, 부의장에 민주당 강미숙(57·여·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군의회는 3일 289회 임시회를 열고 재직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다.

의장 선거에서는 김 의장이 6표, 민주당 장영갑(57·가선거구) 의원이 1표를 각각 얻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4표를 얻은 강 부의장이 3표에 그친 자유한국당 조성봉(62·가선거구) 의원을 눌렀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 당선자 모임에



김영주



강미숙

서 전반기 의장 후보에 추대됐다.

김 의장은 1991년 첫 지방선거에서 이번 자신까지 여덟 차례 출마해 다섯 번 당선된 최다선 의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최고령 당선자다. 서병철 / 재현

忠清日報

2018년 07월 05일 (목)
14면 3지역

8대 단양군의회 개원

의장 김영주·부의장 강미숙

충북 단양군의회가 지난 3일 8대 단양군의회 개원식을 간소하게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섰다.

개원식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돼 과반수 이



상 득표를 한 김영주 의원(사진)과 강미숙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김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위원회로 자리하며,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재남기자

충청신문

2018년 07월 04일 (수)
3면 3지역

단양군의회 개원... 의장에 김영주·부의장에 강미숙 의원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가 지난 3일 제8대 단양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현안 주요 안건들을 비롯해 관내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원식에서는 의장이 김경주 의원, 부의장이 강미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영주 의원은 당선 인사말 통해 “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소원과 열망을 통해 군민을 위한 일에 의회가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만

들에 나가겠다”며 “연세나 군민들에서 군민의 편의를 소중히 여기며, 현 의회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으로 당선된 김영주 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재남기자

충북일보

2018년 07월 04일 (수)
17면 3지역

“민의 대변자 역할 수행”

단양군의회 원 구성 마무리

의장 민주당 김영주 의원

부의장 같은당 강미숙 선출



김영주



강미숙

8대 단양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단양군의회는 3일 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강미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 당선자 모임에서 전반기 의장 후보에 추대된 김영주(77·나선거구) 의원은 재직의원 7명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6표를 얻었다.

신임 김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소원과 열망을 통해 군민을 위한 일에 의회가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만

“연세나 군민들에서 군민의 편의를 소중히 여기고 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선으로 5선에 성공한 김 의장은 지난 7대 하반기 부의장 등을 지냈다. 또 부의장은 재직의원 7명 중 4표를 얻은 강미숙(57·비례대표) 의원이 3표에 그친 조성봉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

군의회는 민주당 4명(비례대표 1명),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청일보

2018년 07월 13일 (토)
3면 3지역

“복리증진·군정발전 위해 노력”

김영주 단양군의회장

민의 대변자 역할 수행
경제·문화 분야에 힘써
경제·문화 정책 조력 추구

“8대 단양군의회가 전반기 의원으로 선출된 박종현 의원을 맞이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강미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영주 단양군의회장은 취임 소감을 아뢰고 “본로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재남기자

의정활동을 통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본로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재남기자

김 의장은 “본로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재남기자

忠清日報

2018년 07월 23일 (월)
14면 3지역

단양군의회 270회 임시회 개최

오늘부터 31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심의

충북 단양군의회는 23일 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안건 추진상황 보고회 건과 행정사 책정·가계 승인의 건, 대포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을 비롯한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와 함께 2회 추가결정 예산(안)도 함께 다룬다. 23~25일 3일간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습을 시작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영주 단양군의회장은 “본로 의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당선자 권

한사항들이 사형적으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은 예방할 필요성에 따라 농작물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2회 추가결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20여억원이 늘어난 4040여억원이고 신규사업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된다. 김병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가예산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원과 열망을 통해 군민을 위한 일에 의회가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만

/단양·이재남기자

“주민 대의기관 역할 충실 ‘할 말은 하는 의회’ 될 것”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

제8대 단양군의회 의장에 김영주 의원이 취임했다. 김 의원은 1, 3, 5, 7대를 거친 5선 군의회원으로 20대가 됐다. 김 의원은 제7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부임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충북도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선훈의에 다수인 단양군의회에 의장으로 취임한 당선의원인 김 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의 오랜 경력, 경험과 노력이 장기를 발휘하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단양군 의회를 더할 나위 없이 단양군에 대한 미래와 민선 7기 단양군에 대한 존재와 역할에 대한 구상을 들어왔다.

~제8대 단양군의회 의장에 취임한 소감은

△단양군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고도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단양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인구문제, 관광도시 도약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의회가 해야 할 일도 그만큼 막중하고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역적으로 고지대인 상황에서 출발한 8대 의회는 본연의 역할인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단양군이 의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향후 단양군의회 역할은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 군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회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 특히 군정에서 행하는 ‘할 말은 하는 의회’도 만들어 나가겠다. 한편으로는 군정들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손을 잡고 실행해 대안을 제시해 갈 시는 단정,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건설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서는 대입과 같은 일은 없어진다. 지역발전은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여과하지 않겠다.



인구문제·관광도시 도약-무거운 책임감
군민행복 기초 속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주민 소통 강화 민선상당 상설장구 추진

~제8대 의회 운영 방향은

△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 군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회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 특히 군정에서 행하는 ‘할 말은 하는 의회’도 만들어 나가겠다. 한편으로는 군정들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손을 잡고 실행해 대안을 제시해 갈 시는 단정,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건설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서는 대입과 같은 일은 없어진다. 지역발전은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여과하지 않겠다.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 군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회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 특히 군정에서 행하는 ‘할 말은 하는 의회’도 만들어 나가겠다. 한편으로는 군정들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손을 잡고 실행해 대안을 제시해 갈 시는 단정,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건설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서는 대입과 같은 일은 없어진다. 지역발전은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여과하지 않겠다.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 군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회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 특히 군정에서 행하는 ‘할 말은 하는 의회’도 만들어 나가겠다. 한편으로는 군정들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손을 잡고 실행해 대안을 제시해 갈 시는 단정,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건설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서는 대입과 같은 일은 없어진다. 지역발전은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여과하지 않겠다.

단양 대충화기자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31일까지

단양군의회는 28~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폐포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을 비롯한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함께 다룬다.

오는 28~29일 3일간 본회의장에선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영주 단양군의회장은 “동료 의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과 현안사업들이 사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201억원이 늘어난 400억원이고 신규사업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된다.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이번 추가예산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편성됐는지 살펴보고”면서 “지방비 부담이 적정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정민화 기자 ym418@daey.com

단양군의회 270회 임시회 개회

오늘부터 31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심의

충북 단양군의회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폐포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을 비롯한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함께 다룬다. 28~29일 3일간 본회의장에선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영주 단양군의회장은 “동료 의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과 현

안사업들이 사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201억원이 늘어난 400억원이고 신규사업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된다.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이번 추가예산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편성됐는지 살펴보고”면서 “지방비 부담이 적정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재남 기자

■ 시·군의회 취임 인터뷰 - 김영주 단양군의회장

“예산 내실있게 심의, 선심성 행정 차단”

군민 권익·복지증진 최우선

진정한 대의기관 자리매김

“8대 의회까지 어둡게 놓은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많은 바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단양군의회장은 단양군민의 행복과 단양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올바른 관계정립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대 의회는 항상 열린 자세로 군민들에게 귀와 희생을 줄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해결하겠다”며 “

먼저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군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해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조화롭게 융화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을 내실있게 심의해 행정기관의 선심성 행정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읍·면지역과 행정성 논란에 뒤쳐져 있는 마을 곳곳을 찾아내어 세대의 논란에 공정을 가져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정단양에서의 공생이 문제되는

업소는 법과 규정을 파악하고 하겠지만 선 규범소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수 및 운영관계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마을간 인구수에 따라 복지수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산물 가격의 하락세를 막기 위해 농산물 상한제 도입을 조속히 제정해 안정적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양군 농업 예산을 인구비례 농업예산에 맞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조비 증액 및 농산물 생산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역이나 계층을 떠나 무엇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군민의 권익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원인 일거수일 좌를 가지고 군민 여러분의 복귀진과 군정정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민간의 의정활동이 그 어느 의회보다 더욱 보람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의정활동에 군민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도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병철 / 단양





단양군의회, 행감 대비 교육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는 지난 27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군의원 전원과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사진). 특히 이번 교육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릴 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전문감사를 초빙한 맞춤형 직무교육 형식으로 실시된 교육으로, 8대 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의원들은 더욱 더 남다른 각오로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수용(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실천사례와 다양한 의정실무를 배웠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또한 단양군의회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평창군, 화천군, 진안군, 강진군의 최우수 선진 의료원을 방문해 각 의료원의 설립 취지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단양군 의료시설의 추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단양=이재남기자



사진은 단양군의회 모습.

단양군의회, 제271회 정례회 전문교육

행정사무감사 대비 · 우수 선진의료원 벤치마킹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는 지난 27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군의원 전원과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내달 4일부터 열릴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문감사를 초빙한 맞춤형 직무교육 형식으로 실시된 교육으로, 8대 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의원들은 더욱 더 남다른 각오로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수용(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사로부터 행감을 피르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천사례와 다양한 의정실무를 배웠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은 "조신 의원들이 다수인 우리 의회에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 의원들 각자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의정활동 능력이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과 함께 행복한 단양을 만드

는 단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양군의회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평창군, 화천군, 진안군, 강진군의 최우수 선진의료원을 방문하여 각 의료원의 설립 취지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단양군 의료시설의 추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에는 평창군 보건의료원, 화천군의료원을 방문하여 보건사업에 대한 운영현황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다가오는 30일에는 진안군의료원과 강진군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영주 의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역 우수시설의 장점을 우리 단양군이 앞으로 나아갈 의료서비스의 방향에 집중하고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 토론을 통하여 향후 건립 할 우리지역 의료시설에서 군민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단양/김선용 기자

조성룡 단양군의원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충북 단양지역 명사들이 두계택(근위축성척삭병증) 환자 고통을 덜어주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렬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열린 흥천초등학교 흥천문화관에서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흥천초등학교-사단)이 30여명의 동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조성룡 의원의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오영락 충북도위원의 지극에 따른 것이다.

이날 조 의원은 다음 아이스버킷 챌린지 대상자로 단양군기독교연합회장 이운영 목사와 다산초교장인 이용우 이사장, 장영남 흥천초등학교 17회 동문회장을 지목했다. 이용우 이사장과 장영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장영남 회장은 다음 대상자로 김남현 흥천초등학교 1학년 동문회장을 선택했다. /단양=이재남기자

"태양광 발전소 난립 대응책 마련하라"

조성룡 단양군의원 5분발언서 개발행위 허가기준 촉구



조성룡(사진) 단양군의회 의원 지난 18일 태양광 발전소 난립 대응책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 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태양광발전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로 태양광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돼 주로 위치 기어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놓고 지역별 건립 반대 편이 붓발을 이루고 있는 현실

이다"면서 "농작물 성장과 태양광 패널 교체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태양광발전소 허가와의 관련해 2017년 3월 기준 전국 53개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면서 "단양군은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삼일립 창안 등을 골자로 하는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장영남 의원은 행사위원 간소화, 김광표 의원은 청소년 및 이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관해 자유발언을 했다. /단양=정병길 기자 jbk@ggibo.com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

구 분	일자별	주 요 안 건 (예정)
제274회 임시회	1. 28. ~ 1. 31. (4일)	•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 기타 부의안건
제275회 임시회	2. 14. ~ 2. 22. (9일)	•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사후관리 특위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제276회 임시회	3. 14. ~ 3. 20. (7일)	• 2018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 세출예산안 • 기타 부의안건
제277회 임시회	4. 22. ~ 4. 26. (5일)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6. 18. ~ 6. 24. (7일)	• 2018년도 예산 · 재무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제279회 임시회	7. 18. ~ 7. 26. (9일)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 기타 부의안건
제280회 임시회	9. 19. ~ 10. 2. (14일)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 세출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제281회 임시회	11. 4. ~ 11. 12. (9일)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0년도 신규사업 계획 보고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기타 부의안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11. 20. ~ 12. 20. (31일)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 세출예산안 • 2020년도 본예산 세입 · 세출 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 위 운영계획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대 단양군의회 의원 현황



의장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 5선
 • 제7대 단양군의회 하반기 부의장
 • 단양군농촌지도자 연합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임위원



부의장 강미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초선
 • 세경대학교 미술치료과 강사
 • 단양군 사회복지사업회 임원
 • 단양노인장애인복지과 부관장



의원 김광표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 초선
 • 국회의원 비서관
 • (현)충청북도 교육청문관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간사



의원 장영갑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 3선
 • 제5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6대 단양군의회 하반기 부의장
 • 신단양지역개발회 이사



의원 조성룡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 초선
 • 단양중·공고 총동문회 부회장
 •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부면장
 • (현)월드비전 단양군지부 부지부장



의원 오시백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 초선
 • 전국한국화학노동조합 성신양회 위원장
 • (현)단양군새마을회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시멘트산업
특별위원장



의원 이상훈
〈무소속〉

나 선거구 / 초선
 • 단양군청년연합회 회장
 • 단양청년회의소 회장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제천단양연합회 위원

부록

의회 전화번호

김영주 의장실 T. 420-3000		강미숙 부의장실 T. 420-3001	
김광표 의원실 T. 420-3004	장영갑 의원실 T. 420-3006	조성룡 의원실 T. 420-3003	
오시백 의원실 T. 420-3005	이상훈 의원실 T. 420-3002	부속실 T. 420-3007 / F. 420-3009	
의회사무과장 T. 420-3010	전문위원실 1 T. 420-3020	전문위원실 2 T. 420-3021	의사팀장 T. 420-3011 / F. 420-3019

오시는길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www.dycc.net